



# 자기 직분 다하는 것이 애국

글·이 문 중

충남 대전시 용전동

신진크로바 아파트 1106호

사회적 지위나 재산, 그리고 학력과 능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어진 자기직분에 충실한 사람들이야말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애국가라고……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례가 있기 마련이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으로 이어진다. 간혹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는 수가 있어도 국기에 대한 경례는 어김없이 행해진다. 그때마다 우리는 태극기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게 된다.

학교 교정에 들어서면 영락없이 「나라사랑」의 구호와 마주하게 된다.

태극기 앞에서의 「충성다짐」이 생활속의 애국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나라사랑」의 구호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 계기로서 중요시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애국정신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민족의 수난기엔 투쟁이 곧 애국의 수단이었다.

독립투사가 애국자로 존경을 받는 것도 모두가 그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러한 개념으로 애국을 생각할 순 없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애국심을 불쑥 느끼게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선수와 외국선수가 열띤 시합을 벌이는 경기장이라는 설명도 있다.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심을 느끼고 조국에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인다고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白凡 金九선생의 말을 빌어보자. 白凡逸誌에 「지식이 결여하고 애국심이 박약한 이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가 곧 제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전에는 아무것으로도 나라를 건

질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나라가 곧 제집」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애국심은 박애(博愛)와 같아 집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다.

참다운 애국심은 자기집 앞을 쓰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말하자면 애국의 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주변에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운 사람」의 뜻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사람다와야 하듯, 공직자는 공직차다와야 하고, 사장은 사장다와야 하며, 종사원은 종사원다와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농촌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혜로운 농민이 있는가 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들 2세 교육을 위해 사명감을 불사르고 있는 「교사다운」교사도 얼마든지 있다. 스포츠에 열중하여 기량을 닦는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낙도에서 등대지기로 소임을 다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위나 재산 그리고 학력과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어진 자기직분에 충실한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번영과 사회발전이 기약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모름지기 입으로만 애국을 말하기 이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에 충실한 것이 참다운 애국인 것이다.